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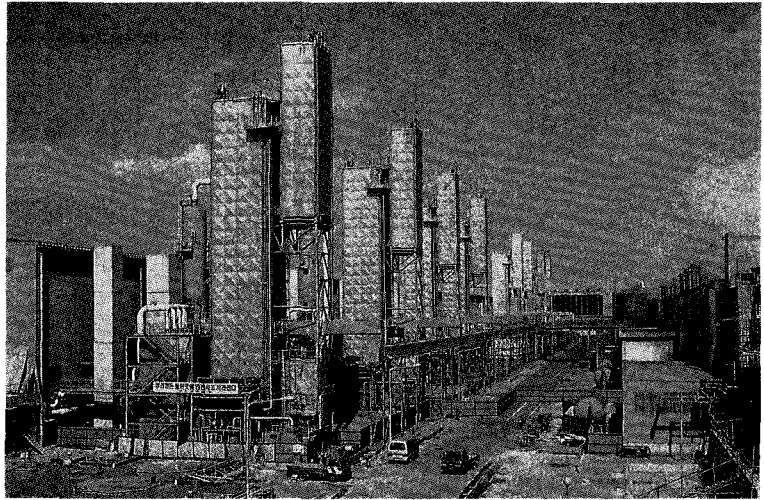
21세기를 선도하는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 도약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건설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여 4반세기 동안 제철소 건설을 통한 국내 굴지의 제철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및 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엔지니어링(PEC)」과 「거양개발」 그리고 포항제철의 엔지니어링본부와 건설본부의 일부를 통합하여 94년 12월 1일 발족한 포스코개발은 국내 최초로 탄생한 E & C(Engineering and Construction) 업체로 포항제철의 장기 Master Plan인 POSCO VISION 2005에서 천명한 3대 기축사업의 하나인 엔지니어링·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포스코개발은 세계 2위의 철강업체로 세계속의 초일류기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포항제철의 녹색경영이념을 이어받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한국 E & C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어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립초기부터 수익력이 높은 고부가가치형 E & C회사로서 토탈 컨스트럭션을 추구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벡텔(Bechtel)사와 같은 세계적인 종합엔지니어링 건설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포스코개발은 2005년에 수주 8조 원, 매출 6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2005년까지 10년간 연구개발비 5천억원을 포함하여 연구소시설 및 운영, 개발사업, 해외합작, 인력개발 등에 총 6조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외형성장에 따라 인원도



광양제철소 산소공장 전경

2005년에는 총 4,800명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자체 기술연구소의 육성과 세계 우수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 등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프로젝트 개발에서 설계, 설비공급, 시공, 감리, 시운전, 사후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E & C 회사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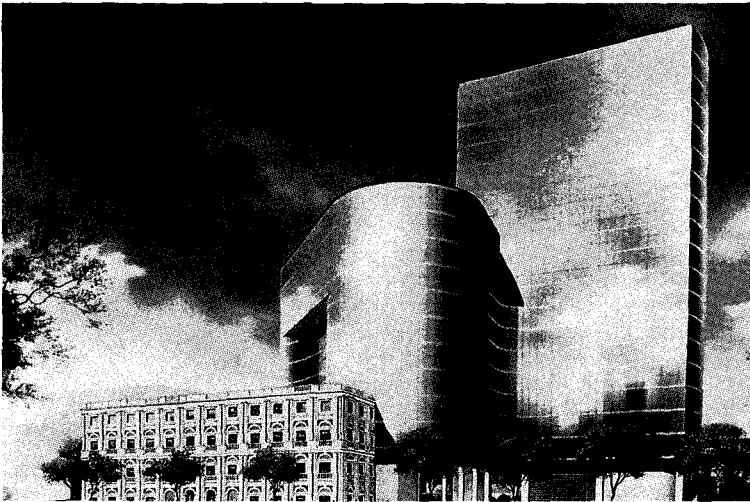
후발업체로서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개발은 지난 1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여 통합전인 94년에 포스코 엔지니어링과 거양개발이 달성한 수주 6,618억원, 매출 4,533억원의 영업실적이, 95년에는 수주가 전년대비 약 3배인 1조6,000억원, 매출은 2배 이상인 1조203억원에 이르렀고, 또한 도급한도액은 5,400억원으로 국내 도급순위가 전년 대비 14계단을 뛰어오른 23위를 기록하는 등 발 빠른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95년도 국내 프로젝트로는 포항제철소내 용융환원 제철법을 이용한 연산 60만톤 규모의 신제선 공장 준공(11월 28일)과 증가일

로에 있는 스테인레스 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스테인레스 능력증강사업, 광양제철소 4냉연 신설공사 및 박(薄) Slab신설 등의 철강 플랜트 공사를 비롯해 국내최초의 민자사업인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사업, 영일만 신항 건설사업 등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SOC분야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는 포스코개발은 세계화를 위한 힘찬 첫걸음으로 착수한 베트남의 하이퐁에 비나 파이프(VINA PIPE)공장 준공(94년 7월)을 시작으로 연산 20만톤 규모의 봉강 생산공장인 VPS Rolling Mill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95년 9월)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호치민에는 연산 1만5천톤규모의 각종 철구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철골합작공장인 포스리라마(POSLILAMA)를 95년 10월 5일 착공한 바 있다.

또한 95년 9월 18일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지하2층 지상4, 13, 20층 규모의 국제비즈니스 센터(DIAMOND PLAZA)를 착공한 바 있으며, 중국 상해에 1억8



Diamond Plaza 조감도 - 베트남 호치민시

천6백만불을 투자하는 비즈니스 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특수강 플랜트 수출의 쾌거를 이룩한 이집트의 ACRO STEEL사가 발주한 연산 14만톤 규모의 특수강 플랜트 수주(1.3억불 상당)는 선진 엔지니어링 업체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자체 능력으로 수주한 턴키(TURN-KEY)방식의 프로젝트로서 포스코개발의 철강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더욱이 기술개발만이 급변하는 21세기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해 갈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하고, 엔지니어링 건설분야의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영국의 연주 전문회사인 DDL(DAVY DISTINGTON Ltd.)사를 95년 4월 영국 셰필드(SHEFFIELD) 현지에 설립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7번째 연속주조플랜트 공급국가의 대열에 올려 놓기도 했으며, 설계·감리, 발전설비, 사회기반시설, 현장 및 시공관리 강화 등을 위해 해외유수의 엔지니어링사와 기술협약을 체결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사무소에 입주해 있는 기술연구소를 별도의 기술연구소 건물을 건립하여 독립시킬 예정이며, 95년말 현재 60여명 수준의 연구인력을 2005년까지 400명 선으로 확충하고, 이 기간중 총 기술투자비도 4천억원 선으로 대폭 확대하여 각 사업부문에서의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부문에 있어서는 96년 2월로 발족 한 돌이 되는 새로운 부서로서 회사의 핵심부서 중의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사업본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사업본부의 기본전략은 발전소 종합설계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선진엔지니어링 업체와 기술 제휴로 발전소 엔지니어링 업무를 공동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설계기술과 사업관리능력을 확보하여 국내의 발전시장은 물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사업본부는 국내 최대의 에너지사용업체(국내 총 에

너지 사용량의 10%, 국내 산업체 총 에너지 사용량의 21%)인 포항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1,500MW의 자가발전설비를 설계, 구매 및 건설하면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력사상 최초로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민자발전사업(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발전사업)중 사업규모가 500MW×2기인 유연탄 화력발전 사업의 수주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광양제철소의 조강능력 확장에 따른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용 LNG 복합발전(약 460MW)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같이 포스코개발은 지난 25년 동안의 제철소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고로·연주·Mini Mill·전기로 등의 철강분야는 물론 발전소 등의 에너지분야, 소각로·폐기물처리설비·수처리설비·집진기 등의 환경분야, 교량·항만·도로·공항등의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대표되는 첨단 건설분야와 기술집약적인 플랜트 엔지니어링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다가오는 21세기의 기술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포스코개발은 세계 어느 업체와 견주어도 경쟁력이 있는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 할 계획이며,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획, 설계, 설비공급, 시공, 감리 등 모든면에서 기술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형 첨단 건설분야에 도전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건설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